

CIO 가이드
**데이터
중심 문화**
로 **재편**



소개

기업들이 데이터 중심 의사 결정과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 및 조직 변화를 위한 노력은 기술 및 프로세스 로드맵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데이터를 완벽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접근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캡처, 큐레이팅,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의 특징 중 하나지만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데이터 중심 조직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며, 비즈니스 일선과 백 오피스에 있는 사용자의 폭넓은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선도 기업은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러한 인사이트에 기반한 사용자의 효율적인 실시간 행동을 지원하는 구조적 변화를 추진합니다.

데이터 중심 기업은 데이터가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신뢰할 수 있고, 대규모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에 중점을 둡니다. 데이터 숙련도는 최우선 과제이며,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실험할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고객 및 파트너 경험을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관련 지표와 KPI는 조직이 이러한 관행과 워크플로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합니다.

간단히 말해 데이터 중심 조직은 적절한 데이터 액세스와 이 정보를 보다 스마트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탄탄한 성과의 엔진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에 입각하여 운영합니다.

“소수의 성공적 데이터 이니셔티브와 특정 비즈니스 분야에 국한된 개별적 탁월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에 데이터 중심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AWS 엔터프라이즈 전략가 Ishit Vachhrajani는 말합니다. “기술, 도구, 데이터에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투명성, 분권, 일선 권한 부여의 문화가 없다면 몰 사람이 없는 고성능 차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 IT 및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데이터 중심 인사이트를 증진하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140% 더 높았고, 지속적 수익 증대의 가능성은 78% 더 높았습니다.

이 eBook에서는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 과정에서 조직이 당면하는 과제를 살펴보고, 운영을 개선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데이터를 취급하도록 집단적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봅니다.

목차

3

데이터 중심 문화를 가로막는 것은?

4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네 단계

- 1) 경영진의 후원을 넘어 경영진의 참여로.
- 2) 일선 액세스, 인사이트, 작업 지원.
- 3) 데이터 사일로가 아니라 데이터 스튜어드 생성.
- 4) 교육 및 계몽.

8

요약: 성공의 모습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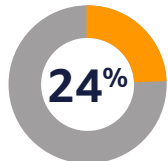
후원사 견해

데이터 중심 문화를 가로막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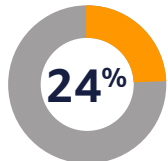
최고 경영진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가 촉발한 엄청난 기회를 깨닫고 있습니다. IDG의 [2021 Data & Analytics 설문 조사](#)에서 IT 의사 결정권자의 78%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향후 3년간 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실무 도입의 가치를 이해하더라도 이 과제를 이행하려면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NewVantage Partners의 [Big Data and AI Executive Survey 2021](#)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거의 모든 조직(99%)이 빅 데이터와 AI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거나 분석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조직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각각 49%와 41%).
- ▶ 불과 39%가 데이터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3분의 1 미만(30%)이 명확한 데이터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4분의 1 미만이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거나(24%) 데이터 중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24%).



데이터 문화를 구축한 조직의 비율



데이터 중심 조직을 구축한 비율

출처: Big Data and AI Executive Survey 2021, NewVantage Partners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관행과 문화 구축의 최대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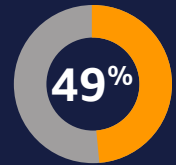
- ▶ 잘못 설정된 방향과 잘못 정의된 출발점
- ▶ 집중적 리더십의 부족: 조직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역할을 확립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리더십과 경영진 참여가 부족합니다
- ▶ 넓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관리 정책
- ▶ 데이터 숙련도 부족: 조직 전반의 데이터 숙련도 부족은 진정한 데이터 '대중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 ▶ 데이터 사일로의 지속: 이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정보에 대한 공유 액세스를 가로막는 문화적 사일로로 뒷받침됩니다.

Vachhrajani에 따르면 "문화적 사일로는 데이터 사일로의 양분이 되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적 사일로는 개별 직능이 서사를 제어하기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할 유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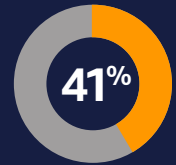
또 다른 장애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는 데 집중하고 사후에 데이터 활용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분류하는 '데이터부터 시작하는(data-forward)' 플레이북에 따라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에서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회사들은 '고객에서 시작해 거슬러 올라가는(customer-backwards)'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나 과제를 파악한 다음 그에 따라 데이터를 매핑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기업은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정작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ortium Partners의 파트너인 Michael Gabriel의 말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성과가 기대 이하가 되기 쉽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거나 나무조차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관행의 도입 지연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의 비율



분석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조직의 비율



데이터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관리하는 비율



30% 명확한 데이터 전략을 보유한 비율

출처: Big Data and AI Executive Survey 2021, NewVantage Partners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네 단계

수많은 난관이 있고 분석할 것도 많지만 많은 조직이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문화 변화를 보장하는 하나의 플레이북은 존재하지 않지만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하면 올바른 경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2 3 4



CIO 가이드: 데이터 중심 문화로 개편

1단계: 경영진의 후원을 넘어 경영진의 참여로.

문화를 바꾸는 것은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과정이므로 경영진의 변함없는 약속에 의해 지탱되는 엄청난 제도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화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최고 경영진(C-level)의 후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리더는 데이터를 핵심 비즈니스 목표와 결합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보여 주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원은 단순히 팀, 부서, 직무의 특정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이끌고 메시지를 전달할 '단일 스레드'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문화 변화 추진의 핵심입니다. 이 리더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또는 최고 분석 책임자와 같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존 CIO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전반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다양한 직무와 부서에서 일하는 데 능숙해야 하며,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자체 인원과 예산으로 중앙 집중식 데이터 직무를 구축하려는 경영진 사고방식이 아닌 서번트 리더십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Vachhrajani는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 데이터 제국을 구축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성공을 견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전반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연결 조직입니다."

데이터 리더가 IT 조직 외부에서 별도의 직무를 운영하는 경우, IT 부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부서는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백본 및 현대적 기술 역량의 구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주기, 부서 간 워크플로 및 트랜잭션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Vachhrajani는 "AI 모델이나 기계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CIO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점

몇몇 조직은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및 분석 혁신 센터(Co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CoE는 영지 또는 또 다른 데이터 사일로가 되기 십상입니다. 성공적인 CoE는 조직을 규합하여 모범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됩니다. CoE가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의 데이터 관련 요청이 집중되는 서비스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네 단계

1 2 3 4



2단계: 일선 액세스, 인사이트, 작업 지원.

데이터 대중화에 대한 논의는 흔히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고객과 가장 가까운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직이 데이터뿐 아니라 작업자의 행동을 허용하는 의사 결정을 대중화하는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경우 문화 변화의 효과는 정말 큼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가설을 구축할 수 있고 성공이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용 사례 한두 개로 시작하세요. 계속 반복하고 점증적으로 데이터 역량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단기적 성공을 활용하여 기대를 높이세요. 광범위한 변경 관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선 사용자에게 결과를 전달하여 모멘텀을 구축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데이터 중심 문화로의 재편에 따라오는 보다 큰 이점과 연계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참여를 조직 전체에 확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일방적' 의사 결정 모델에서 '양방향' 문 모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실험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된 위험 감수를 장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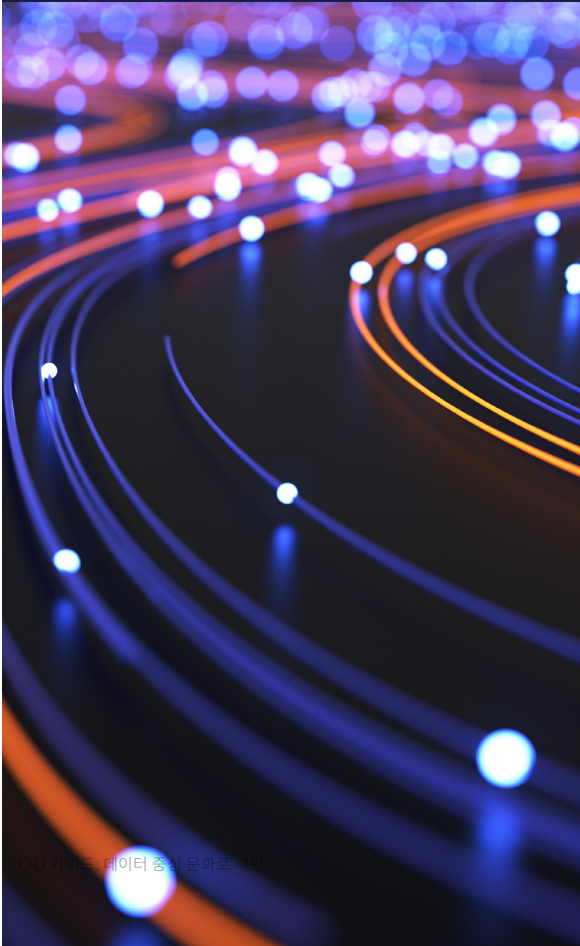
적절한 데이터가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의사 결정이 향상되려면 거버넌스와 정책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거버넌스 기반은 조직 안팎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가 관련성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려면 정보에 액세스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고 데이터를 찾기에 적절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한편 남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자연적 성향이 있지만 이보다 현명한 방법은 고객 센터의 대기 시간 감소, 고객 만족을 향상 또는 매출 증대 같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는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어 가능한 입력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면 지속적 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빠른 속도로 뛰어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 또는 고객 경험 창출과 관련된 결정이건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과 관련된 결정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네 단계

1 2 3 4



3단계: 데이터 사일로가 아니라 데이터 스튜어드 생성.

사일로는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사일로를 허물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레거시 문화와 조직 구조는 자신의 어젠다 홍보를 위해 데이터를 큐레이팅, 검증, 게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는 보상을 주면서 다른 개인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버전의 진실이 생기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조직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 사일로가 아니라 데이터 스튜어드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데이터 액세스를 제한하는 게이트키퍼 기능을 넘어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한 다음 해당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적절한 제어가 동반됨)을 생성하는 인에이블먼트 전략으로 전환하는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조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Vachhrajani는 말합니다. “어떤 게이트키퍼 제어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어를 파악하면 작업 또는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존재하는 사일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그룹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와 이런 방식이 기업 전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스튜어드를 만들려면 데이터 액세스와 품질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교육자이자 데이터 챔피언이 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데이터 세트 검증 및 게시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동화를 폭넓게 활용하면 여기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O는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부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기꺼이 공유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데이터 스튜어드 생성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IT 중심 자동화는 수동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전술보다는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abriel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 공유가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특정 부서에게 이익이 됐던 실제 사례로 시작하세요.”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소통의 일환으로 “공유가 없으면 데이터 중복과 비용 중복이 생길 수 있고,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는 개별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런 수준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CIO가 최고 경영진 수준부터 일선 운영까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Gabriel은 말합니다. “여러 면에서 CIO는 COO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회사 운영의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운영과 이러한 운영이 통합되거나 보완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주의할 점

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를 현대화할 때 데이터 액세스 간소화에 중요한 프로세스 개선을 간과하지 마세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데이터 사일로를 다시 만드는 것도 이런 실수에 포함됩니다. 달성하려는 비즈니스 성과를 기준으로 기존 프로세스와 데이터 흐름을 다시 생각할 기회로 마이그레이션을 활용하세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중심 문화 구축을 위한 네 단계

1 2 3 4



4단계: 교육 및 계몽.

조직은 전략적 자산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데이터 숙련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활동은 조직 내 인력이 데이터를 일상 활동에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흥미를 갖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경쟁, 해커톤, 실제 연습을 후원하면 평균적인 비즈니스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익숙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데이터 중심 의사 결정의 위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이 중앙 마켓플레이스에 분석 모델을 제공하도록 장려하여 동료 그룹이 자체 비즈니스 필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숙련도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일선의 사용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Vachhrajani는 말합니다. “이들의 데이터 인식을 높이고 이 훌륭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물론 데이터가 모든 수준의 작업에 통합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 외에도 엔지니어링 전문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스토리 텔러를 참여시킬 방안을 찾으세요. 이들은 분석 전문 지식과 비즈니스 전문 지식의 격차를 좁힐 수 있으므로 최고 경영진, 영업 담당자, 운영 팀 구성원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Gabriel은 “대부분의 경영진은 경우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고 성공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기술의 약속을 미심쩍어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며, 경영진의 기대를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초과할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비용/이득 비율과 위험/보상 비율입니다.”

주의할 점

데이터 숙련도는 데이터 사용과 공유의 가치에 대한 조직 전반의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을 통해 뿌리를 내립니다. 데이터에 대한 공통의 언어가 없다면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모두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가치관, 믿음, 아이디어를 확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약

성공의 모습

성공적인 데이터 중심 혁신은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뿐 아니라 전체 인력이 문화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을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은 느릴 수 있지만 조직이 문화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몇 가지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더 많은 수의 혁신 프로젝트:** 실험을 장려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 **병목 감소:**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품 파이프라인 편입,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고객 트랜잭션 촉진 등 다양한 직무에서의 병목 및 주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 ▶ **채용 및 보유 개선:** 비즈니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행동에 활용하여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 ▶ **데이터 숙련도 향상:** 데이터 숙련도는 새로 권한이 부여된 비즈니스 사용자가 권한을 받아들이고 전에는 없었던 역할을 맡으면서 향상됩니다.

“문화는 바꾸기 힘들고 정의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Vachhrajani는 말합니다. “엄청난 의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더십, 권한 부여, 기술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조직은 뛰어난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데이터 중심 문화를 개발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후원사 견해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조직은 고객 기대치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사이트와 진실은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면 조직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및 자체 관리형 데이터 솔루션에서 완전관리형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복잡하고 값비싼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팀은 혁신하고 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클라우드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이러한 전환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선택한 기술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보안을 유지하고 광범위하고 변화무쌍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어느 곳보다 AWS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AWS의 Database Migration Service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450,0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데이터 현대화를 완료했습니다. Amazon.com은 거의 7,500개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75페타바이트의 내부 데이터를 AWS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비용을 60% 이상 절감했습니다.



AWS는 누구나 데이터에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간단한 경로, 향상된 데이터 가시성, 즉각적인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AWS의 완전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및 분석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면 인프라 관리 작업을 AWS로 넘기고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AWS 고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데이터 현대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